

第5次 日-韓 學術討論會

日本の 書面添附制度 및

韓國의 電子税金計算書 發行制度

(副題) 日本/會計參與制度 그 後· 韓國 /稅務士名稱使用 獨占 그 後

日時：2009/10/13(火)

場所：近畿稅理士會會館

近畿稅理士會/釜山地方稅務士會

目 次

1 會長人事

| | |
|-------------|-----|
| 近畿税理士會 會長 | / 4 |
| 釜山地方稅務士會 會長 | / 6 |

2 主題 및 副題 發表文

| | |
|---------------------------|------|
| (日本/主題) 書面添付制度에 대하여 | / 8 |
| 發表者：業務對策部長 田中 勇治 | |
| (日本/副題) 會計參與制度 | / 92 |
| 發表者：會計參與普及推進委員長 岩橋 一好 | |
| (韓國/主題) 電子税金計算書 發行制度에 대하여 | /106 |
| 發表者：國際理事 郭 泰淳 | |
| (韓國/副題) 稅務士 名稱使用 獨占 | /136 |
| 發表者：國際部員 黃 仁宰 | |

:

3 質疑應答

| | |
|----------------|------|
| 日本側에서 韓國側으로 質問 | /176 |
| 韓國側에서 日本側으로 質問 | /186 |

4 參考資料

| | |
|---------------------------------------|------|
| (日本) 書面添附制度의 普及·定着合意文 (日稅連/國稅廳) (韓國語) | /200 |
| 書面添附制度의 普及·定着合意文 (日稅連/國稅廳) (日本語) | /201 |
| (日本) 書面樣式制定/法令解釋通達 (韓國語) | /202 |
| 書面樣式制定/法令解釋通達 (日本語) | /203 |
| (日本) 添付書面作成基準/指針 (日稅連) (日本語) | /214 |
| 添附書面作成基準/指針 (日稅連) (韓國語) | /223 |
| (日本) 國稅廳長官/事務運營指針 (法人課稅部門) (日本語) | /233 |
| 國稅廳長官/事務運營指針 (法人課稅部門) (韓國語) | /241 |
| (日本) 稅理士法 및 施行令 (日本語) | /248 |
| 稅理士法 및 施行令 (韓國語) | /315 |

회 장 인 사

안녕하십니까?

긴끼세리사회 미야구치 사다오 회장입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김성경 회장 및 임원 여러분, 바쁘신 중 일본에 와 주시고 오사카에서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회와 당회는 1991년도에 우호친선합의서에 조인한 이후 친선교류를 폭넓게 해왔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총회참가 외에 학술적인 면에서 연찬을 쌓았고, 더 한층 충실한 교류를 위하여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귀 회의 테마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전자화와 세무사 명칭사용 독점입니다.

현재 전자신고가 완전 정착단계에 들어선 귀국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아주 중요한 세금계산서가 내년 1월부터 전자화되는 획기적인 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들려주시고, 그리고 2003년12월31일 법 개정으로 인정받은 세무사의 명칭사용 독점에 대한 실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테마는 서면첨부제도와 회계참여제도입니다. 서면첨부제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제도와 함께 세리사의 권리로서 더욱 보급·정착을 꾀하기 위한 환경은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그 현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회계참여제도에 대하여, 제2회 학술토론회에서 소개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후의 경과사항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두,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전문가로서 인접한 국가간에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배우면서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이 학술토론회가 상호 이해와 우호를 더욱 깊게 하는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성경 회장 및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융성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긴끼세리사회

회장 미야구치 사다오

회 장 인 사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성 경입니다.

미야구치 사다오 회장님을 비롯한 긴끼세리사회 임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회는 1991년 우호친선합의를 맺은 이래 해마다 거듭되는 만남과 특히 지난해까지 4회에 걸쳐 행해 졌던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우의를 다져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남이 성년에 도달해 한층 더 성숙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호이해와 협력에 바탕 하여 양회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세심 제안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는 평화에 기초한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긴끼세리사회의 우호친선 관계도 그런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저희들은 이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서 돌아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무사 제도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도전에 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회원 60%가 투자하여 전산법인 "Hangil TIS"를 출범시켰습니다. 독일의 "DATEV"를 필적하는 전산법인을 갖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시간이 허락 하는 대로 이와 같은 많은 정보를 교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토론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끝으로 긴끼세리사회 미야구치 사다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며 저의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13.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성 경